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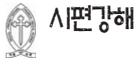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내 죄를 사 하소서

(시편 51:1-19)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편 51편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참회시입니다. 주석가며 설교가인 스펠전 목사님은 시편 주석을 하면서 시편 51편에 와서는 몇 주씩 연기하고 또 연기하며 힘들게 썼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참회가 없이는 시편 51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사에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자신은 죽는 시간까지 참회해야 할 죄인이므로 자기가 장례될 때 시편 51편이 설교 본문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한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죄가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자비로 도와주소서(1-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1절).

다윗이 자기가 처한 죄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지각 있고 행동적이며 순수하고 깊이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목숨 걸고 구하고 있습니다. 전지 하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찾고서는 하나님께 접근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 33:19). 자비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죄인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묘사한 3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설명하는 3개의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의 죄악은 하나님의 도덕법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 2절의 죄악은 원죄 또는 본성의 부패를 의미하며, 2절의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2. 죄를 씻어주소서(3-7절)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긍휼하신 분으로 부르며 자기 죄, 곧 원죄와 율법을 깨뜨린 죄, 하나님 뜻에 이르지 못한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자기가 지은 죄를 역시 3단계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3절). 죄를 끝까지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은 죄 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간악한 행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4절). 죄를 범하고도 태연한 척하는 사람은 가뭇 유다의 후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한 죄가 항상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밧세바, 우리아, 그리고 그의 죄로 고난에 처한 국가와 민족 앞에도 범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이처럼 심각한 죄의식에 빠진 것입니다.

죄책감만으로는 사죄 받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다윗의 고백은 자기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의미하

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가해 행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나병환자처럼 추하고 참담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병환자의 결례의식에 사용하는 우슬초로 자기를 정하게 해달라고 애소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 흘림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죄보다 더 큼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오기만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3. 새롭게 하소서(8-15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10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롬 7:18) 고 했습니다. 범죄의 원인은 외적 유혹 때문이라기보다 자기만의 부패한 심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

지 마소서”(11절).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는 여전히 악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내주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한 후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12절).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찾듯이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한 구원의 즐거움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씻김을 받은 다윗은 새로워진 영을 찾고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갖기 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최선책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한 다윗은 범죄 한 자에게 가르쳐 죄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는 아무리 큰일을 하고 많은 것을 드러도 하나님께서 열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란한 번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 곧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회를 위한 봉사가 될 수 있고, 모든 봉헌이 주께 열납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은 후라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새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증거하며 죄인들이 돌아오고 주께 찬양하며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새사람이 되어 주님을 향한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K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핍박받는 터키 교회 위해 기도를!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성지 이스탄불이 되고 사도 요한과 바울이 전도했던 초대교회의 요람지였던 터키에 모슬렘 교도가 전 국민의 99.5%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의 교회는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

지난 18일에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타야라는 도시에서 기독교인 세 사람이 모슬렘들에게 목이 잘리우는 참상이 벌어져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터키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언론을 통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긴장이 고조

되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는 터키교회 연합회 회장인 베드리 목사에게 KIMCHI를 대표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와 위로의 편지를 지난 23일 보내었다. 베드리 목사는 이번 KIMCHI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으로서 한국교회의 기도와 위로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감사하는 말을 드린다는 답신이 왔다.

15차 KIMCHI 세미나에 초청받은 터키교회 지도자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겠다.

교회학교, 주일 전도 열정 타올라 100만인 전도운동의 일환으로

교회학교에서는 주일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 초등부에서는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단기 전도학교'가 은혜 중에 열리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 매주 1부 가족 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시간 동안, '글 없는 책'을 교재로, 복음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 초청잔치'에 초청할 친구에게 능력 있게 복음제시를 하기 위해 짬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부는 지난 4월 15일 주일부터 성경 공부(G.B.S)후 교회인근 한티공원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전도 하고 있다. 이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100만인 전도 시범교회인 서울교회 전도대열에 동참하여 매주 전도하는 것이다.

교회학교 학생들의 전도를 통해 인근의 많은 학생들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어린이 주일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교회는 다음 주일(5월6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 교육1국(국장 서문석 장로는 부서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한티공원에서 친구초청잔치를 연다. 이는 4월 한 달간 '어린이 단기 전도학교'에서 훈련 받은 초등부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전도한 친구들을 초청하여 전도 추수잔치를 벌이는 것이다.

1. 교육1국 특별행사

유아부는 부모초청잔치를 열어 인형극을 공연하고, 어린이들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바디페인팅 행사를 가진다. 유년부는 701호에서 친구초청잔치를 열고 학생들이 작정 기도하며 전도한 친구들을 초청한다. 학생들이 준비한 '작은 발표회'와 '인형극' 등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준비된다.

초등부는 가족예배를 함께 드린 후 아침 10시부터

2.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 - 5월6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특별순서 가져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원학연)이 우리교회 부설 호산나 학교의 초청으로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예배시간에 특별찬양을 드린다.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주기도와 생명의 양식, 그리고 예수 나의 기쁨 등 전통교회 음악으로 약 30분 연주하게 된다.

해병대 중앙교회 우리교회 방문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해병대 군악대 연주한다

오늘 우리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내방한다. 해병대 사령부내 해병대 중앙교회에서 찬양단과 성도, 해병대 군악대 등 100여명이 방문하여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병대중앙교회 찬양단(지휘: 이상철 소령)은 아 곱의 축복 외 3곡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들려드리게 된다.

제40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

5월 8일(화) 우리교회에서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의 제40회 정기회가 우리교회당에서 열린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이 행사에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고등부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가져

매월 넷째 주, 수요일 2부 예배 후 601호

고등부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여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4월 25일(수)부터 601호 고등부실에서 정수길 목사(고등부 지도) 인도로 수능생을 위한 상시 기도회를 갖고 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2부 예배 후 기도회를 가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가정은 누구나 기도회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의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5월 중 행사

- 5월 6일(주) - 어린이 주일
- 5월 8일(화) - 제40회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
- 5월13일(주) - 아버지 주일
열린프로그램종강
(세계선교대학, 교구일꾼양성반, 교사양성반)
- 5월18일(금) - 찬양대원 세미나
- 5월20일(주) - 스승의 주일
- 5월24일(목) - 한마음 한가족 체육대회
(장소:안산공대)
- 5월26일(토) - 강남노회 아동부 연합회
- 5월27일(주) - 공동의회(장로선거)
중등부 헌신예배
- 5월28일(월) - 15차 KIMCHI 신학세미나 시작

금주의 성구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보다 함과 같으니라(로마서 15:9)

so that the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as it is written: "Therefore I will praise you among the Gentiles; I will sing hymns to your name." (Romans 15:9 [NIV])

만민에게 전도 - KIMCHI 신학세미나는?



알아봅시다! '김치'

1. 김치 신학세미나란?

우리가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받은 현지의 언어와 관습 등을 잘 알아 능숙하게 선교활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지인이 자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노력과 시간은 엄청나게 절약되고 효과도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우리교회는 해

마다 다른 문화권의 목회자(교계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재훈련하여 고국에서 복음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이다.

초청받아 서울교회에 온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관찰하고 체험하여 자국복음화에 기여하게 되는 한편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 교회와 깊은 교제를 하며 다른 나라 교회의 긍정적인 면도 배울 수 있게 되는 win-win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교회 내에서 선교의 비전이 확대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최선의 선교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성장과 갱신의 비전을 심게 된다.

참고로 김치 신학세미나는 1996년에 세계 로잔위원회의 공인을 받은 기구이다.

2. 김치 세미나란 이름과 로고가 참 특이한데 이 이름과 로고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김치(KIMCHI)는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고유의 음식인 김치처럼 전 세계 교회의 잃어버린 영적인 입맛을 돋우어 주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로고는 서울교회 로고인 물고기 옆에 지구본과 펼쳐진 성경책이 붙어 있다.

먼저 교회마크인 물고기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를 상징해왔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구주의 첫 글자를 모으면 물고기가 된다. 이는 우리교회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한 사도적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삼위일체 십자가를 한복판에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뜻으로 물고기의 꼬리는 세상을 향해 퍼져 있다. 교회의 상징색인 푸른색(sky blue)은 믿음과 사랑에 소망을 품은 교회를 나타낸다.

이러한 교회 로고 옆에 붙어있는 지구본과 펼쳐진 성경책은 우리교회가 또한 세계교회를 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임을 나타낸다.

〈편집부〉

Korea Institute for Mission &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의 첫 글자를 모은 것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처럼 전 세계 교회의 잃어버린 영적 입맛을 돋우워 주자는 뜻 담겨...

천국시민양성 - 새가족

내게 주어진 17166번

성기호 집사(11교구)



“그간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 힘써 교회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의 교적번호는 17166번이며, 11교구 3다락방에 속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보내신 이종윤 목사님의 서신입니다. 이 교적번호를 받는 순간의 감격과 희열은 지금도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과 함께 저는 지금까지 자각하지 못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스림 생각해왔습니다.

전에는 거울에 비친 나의 겉모습을 보았지만 이제는 위선과 교만과 거짓으로 얼룩진 내면의 모습을 봅니다.

올해는 제가 공사(公社)에 입사한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77년 4월 21일, 공사에 입사했을 때 저의 꿈과 삶의 목표는 열심히 일해서 임원이 되는 것이었고 그 꿈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회에서 새가족부 교육을 받은 이즈음 나는 그 꿈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골프를 치기 위해 일요일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을 기다립니다. 이 목사님의 맑은 샘물과 같은 생명의 말씀,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열정이 전해지는 요즈음, 나의 마음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뜨겁기만 합니다.

1950년 1월 4일이 제 육신의 생일이라면 새가족부를 수료한 2007년 3월 18일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진정한 제 생일입니다.

저는 이제 교적번호 17166인 서울교회 교인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성숙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만민에게 전도 - 터키도교팀

터키를 향한 무릎 선교

정미연 집사 (터키도교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첫 christian의 별명을 받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아름다운 turkey! 무슬림으로 변하여 주님의 사랑을 버린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 전하길 간절히 소원하는 전광혜 선교사와 김종일·백승미 선교사를 우리교회를 통해 파송하셨습니다.

터키 땅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방주, 등대가 되는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슬림과의 영적 전쟁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 땅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혼자 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를 세워서 뒤에서 기도의 대표를 쏘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104호에서, 주일 오후 3시30분

903호에서는 터키 땅과 선교사님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기도의 용사들이 무릎으로 선교 대열에 함께 섭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교사님의

현신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터키 땅이 사도 요한의, 바울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5월 말부터 열리는 김치신학세미나에 터키 목회자들을 초청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실 목회자들이 마음 문 열고 기도로 준비하여 이번 신학세미나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큰 용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이상을 파송하길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고 터키 땅에 큰 선교의 열매 맺는 복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선교지에서 온 편지

카작에도 봄이 오기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펴고 있는 이은준 강혜정 선교사의 선교 보고가 도착하였다. 이은준 선교사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가운데 서울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과 사랑을 가장 감사하며 다음의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는 2006년 12월에 1년 동안 전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도청의 안기부장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허가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가정교회 예배를 시작한 마을(사역지에서 100Km)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겨울 내내 눈이 많이 쌓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 형편인데 두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가던 중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두 바퀴 반을 돌면서 길 밖으로 차가 돌진하였으나 오히려 많이 쌓인 눈이 차를 보호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말을 타고 지나가던 한 소년이 도와주어 예배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동안 저희 사택에서 함께 먹고 자며 첫 번째 겨울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래에 우리 미르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질 것을 기도합니다.

이 곳에서 교회건축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동네 주민들의 동의서와 시청의 허가가 필요한데, 시청에서 직원이 나와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교회건축에 찬성하는지 묻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동네 주민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지난 해 단기선교팀의 봉사가 작은 씨앗이 되어 주민들과의 관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반노프가 마을의 잔넛 자매가 자기 친구를 처음으로 가정교회에 인도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라즈에 두 자매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제도 하였습니다. 우리교회에 나오는 또 다른

자매의 동생도 타라즈에 언니를 따라 방문한 길에 함께 식사하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한글학교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도 가르쳐 달라고 하여 영어교실도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9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동안 나오지 않던 자매 6명도 새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과 한글공부를 통해 친숙하게 되고 그 중에 복음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서울교회 성경 일천독 대상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카작 성도들도 적극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부부와 두 자매가 카작어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현재 3가정이 참여하고 있으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작 성도들의 이름도 대한민국 지도에 꼭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가능하면 우리도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활절 이후 교회 마무리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1. 1500만 카작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2. 짐볼 100만/ 타라즈 43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주세요.

등정

- 박광일 전도사는 북한인권위원회 초청으로 방미 (5.2 귀국)
- 승진 : 서명조 집사(6교구) 대원강업(주) 감사실 상임고문(상무이사)
- 개인전 : 김정미 집사(13교구) 5.2-8 조선일보 미술관 강석우 집사 · 나연신 집사(4교구) 인사동 아트센터(5/2-8)
- 주간식당 봉사 : 루디아전도회(4.29) 에스더전도회(5.6)
- 금주의 식사 : 신화우 집사 · 김경희 집사 가정 서창원 집사 · 이기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만민에게 전도- 비전2020

군선교사 되어..



이재혁 (대학부)

하나님의 종 이재혁은 군 입대를 통해 나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주일예배를 반드시 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주변의 어떠한 유혹에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내 자신의 회개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훈련소 생활 중 적어도 5명의 동기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전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지만 군 복무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고 믿고 전도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 생활 동안에도 나의 신앙을 지키고, 후임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기를 다짐해봅니다. 군 복무 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군 생활을 은혜롭게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 · 주부대학 · 살림경로대학 열린프로그램 들을 위하여
4. 목회자 신학세미나, KIMCHI 세미나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